"서양불교 색깔 여성·연민에 초점"

잭 콘필드 · 트루디 굿맨 등 불교 지도자 대담

박정현 객원기자

'서양 불교'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갖기 시작했다. '승가' 또는 '기복 신앙'에 집중된 아시아 불교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막 제 옷을 입기 시작한 서양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다음은 이와 관련해 불교매체 라이언스로어(Rion's roar) 주최로 서구 불교 지도자 잭 콘필드(Jack Kornfield), 트루디 굿맨(Trudy Goodman)과 배우 산드라 오(Sandra Oh)가 나눈 대담이다.

산드라: 불교가 미국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관계가 금세기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잭: 그것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불교가 미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사실 연민, 자애, 용서, 평정, 상호 의존 등을 '실천'하는 그 자체에 있다. 그 실천이 선행된다면 자연히 교육, 건강관리, 예술 등을 변화시킬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또 다른 종교 또는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서양 불교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 아직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일본이나 티베트 불교처럼 새로운 형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유의 서양 불교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발전단계 계속되는 서양불교
일반인 중심으로 성장해와
여성지도자 활동 두드러져
日·티베트 등 새 형태 기대

서양문화 내재된 폭력 등에
불교 가치가 도움될 수 있어

트루디: 여기 불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가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3대 여성 평신도를 통해 다르마가 전도되는 과정을 봤다. 내 불교 스승 중 한 명인 샤론 잘츠부르크(Sharon Salzberg)로부터 내게 (다르마의) 환희가 전달됐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 크리스티안 울프(Christiane Wolf)와 베스 스턴리브(Beth Sternlieb)에게 이어 나갔다. 그것은 서양 불교에서 일종의 '격변의 시기'를 상징한다.


왼쪽부터 서양불교 지도자 잭 콘필드와 트루디 굿맨, 배우 산드라 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잭: 맞다. 서양 불교는 아시아 불교와 달리 평신도 및 일반 불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는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다. 다소 가부장적인 아시아 불교보다 더 민주적인 면도 있다. 이제는 기술과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에서 미래 불교 세대들이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

산드라: 오늘날의 서양 다르마 연구가들이 그들의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트루디: 모든 다르마 연구가들은 그들의 장단점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들 삶에서 어떤 영역에 관심이 더 필요한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불교 선구자들은 우리가 다르마를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일러줬다.

전반적으로 나는 미래의 명상가들이 '스스로' 사색하는 삶을 어떻게 전체 인간 사회에 전파할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 문화에 내재된 '억압' '폭력'과 같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 불교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러한 자성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내면의 평화를 전파할 수 있다.

잭: 나 또한 미래 다르마 연구가들이 '사랑', 즉 연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연민은 불교 실천의 척도다. 사랑, 애정, 연민의 감정이 커질수록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지혜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산드라: 어떻게 당신의 가르침이 수년 동안 변화를 이끌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나.

잭: 내가 (불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나아졌다. 나는 아시아에서 전사적으로 불교를 배웠다. 밤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금욕적인 수도원 또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충동을 억제시키는 다소 사납고 야생적인 접근법이었다. 진실은 우리의 정신은 서양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방법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관용과 동정심을 먼저 수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내가 변화해 온 한 가지 방법이다.

산드라: 오늘날 불교와 마음챙김명상이 서양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엇이 사람들을 불교 또는 마음챙김명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나.

트루디: 명상은 이제 사회 많은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불교 명상법뿐 아니라도 명상적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비단 종교로서가 아니라 '생활 건강'의 일부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때로 마음챙김명상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 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음챙김명상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우선 불교 명상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다.

뉴질랜드, 이민자들 방생으로 '몸살'

붉은귀거북 · 장어 등
생태계 파괴 문제로

뉴질랜드 불자들의 방생활동이 자연생태계를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 '뉴질랜드헤럴드(nzherald)'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불자들이 웨스턴스프링스 호수에 거북이를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방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오클랜드 평의회 생태환경 자문위원인 이모겐 바셋 박사는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은 가장 빨리 퍼지는 동물 중 하나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자들은 장어와 생선과 같은 도살될 예정인 어류를 식당과 어시장에서 사들여 강과 바다로 풀어주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불교는 동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전파됐으며, 뉴질랜드에서 기독교와 힌두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종교다. 대부분의 방생은 이러한 동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바셋 박사는 오는 2월 중국의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방류되는 동물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뉴질랜드 불자들의 방생 활동이 뉴질랜드 자연생태계를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뉴질랜드헤럴드

그는 "포획된 동물들을 야생으로 방류하는 것은 대부분 위법행위"라며 "붉은귀거북이나 비단잉어 같은 외래어종은 뉴질랜드 토착어종과 취약한 민물 생태계에 스트레스를 주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웨스턴스프링스 호수는 뉴질랜드 토종장어와 식물들의 서식지이자 흑조와 같은 새들의 고향이다. 그러나 최근 이 생태지역에 토끼와 수탉 등이 버려지면서 애완동물의 쓰레기장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불자는 "방생을 위해 40~100달러를 주고 애완 거북이를 사서 풀어주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거북이가 장수를 상징하고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믿어 거북이를 자주 산다"고 말했다.

불자인 헤일리 영은 "식당에서 식용으로 쓰일 대구를 사서 물가에 풀어주며 염불을 한다"며 "물고기 한 마리가 방류되면 죽더라도 그들은 자연에서 죽는다. 이것은 해방을 의미하며, 나는 그들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동물 방생이 야생 동물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록 그것이 종교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생태계를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질랜드 당국은 방생활동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키위스(Kiwis)'와 같은 멸종위기동물 보호단체와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페르난도 오클랜드 의대교수는 불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불교의 오래된 전통"이라며 "하지만 이들을 방생하는 것보다 가족, 동료를 비롯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부드러운 친절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도 구자르트서 4~5C 불두 발견

불교명소 타룽가 인근 '람데브 퍼' 사원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州)는 불교의 과거와 현재 사이 어떤 '회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구자르트 내 바라비 푸르(Valabhi), 바다거(Vadnagar), 타룽가(Taranga) 또는 데브니 모리(Devni Mori) 등 지역들은 기원전 3세기와 서기 13세기 사이 인도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타룽가 인근에서 발견된 석가모니 부처상의 머리는 인도고고학조사(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이하 ASI)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의 1월 1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ASI는 인도 불교의 고고학적 명소인 타룽가 지역에서 4~5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불상의 머리를 발견했다.

ASI 관계자는 "우리는 타룽가 언덕에서 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솔타사나 타루카(Saltasana taluka)의 네갈디(Negardi) 마을에 있는 람데브 퍼(Ramdev Pir) 사원에서 불상 머리를 발견했다. 곱슬머리와 긴 귀, 둥근 얼굴형, 반쯤 감은 눈 위에 아치형의 눈썹"이라고 불두의 생김새를 설명했다.


인도고고학조사단(ASI)의 발굴현장.
사진출처=타임즈오브인디아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불상 두상과 비슷한 형태가 데브니 모리 유적 발굴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유물이 4~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ASI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ASI는 지난 3년간 압히짓 암베카르(Abhijit Ambekar) 박사의 지도하에 바다거, 타룽가 등 지역의 불교 유적을 조사해 왔다. 이 장소에서 구자라트 및 인도 서부 불교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주요 유적들이 다수 발견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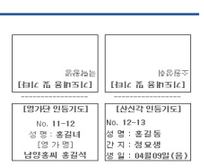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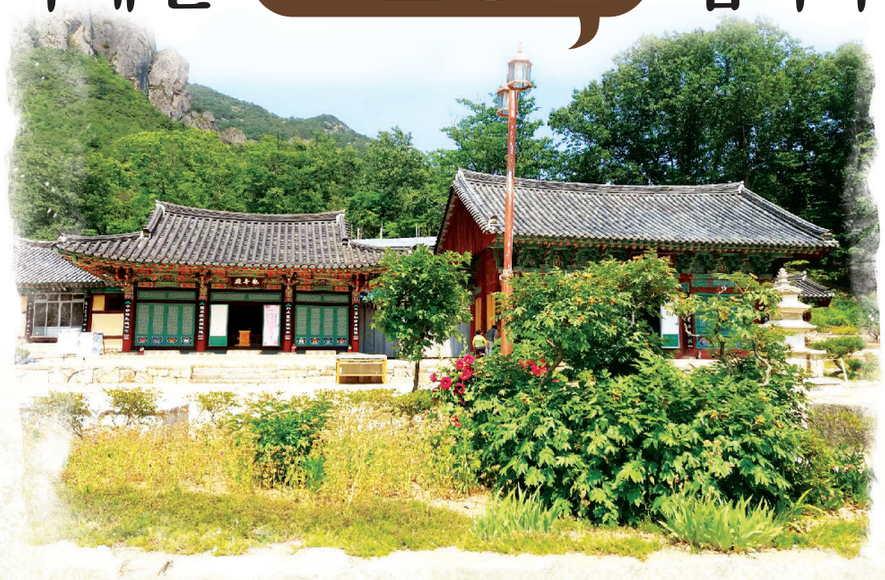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